



# 2015 한국광고주대회

KAA Annual Conference 2015



국내 주요 광고주들이 한자리에 모여 광고산업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2015 한국광고주대회'가 지난 10월 22일 조선호텔 오키드룸&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특별 세미나'와 '광고주의 밤 KAA Awards 시상식' 등 두 개의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2001년부터 'Free Markets, Free Communication, Free Choice'를 슬로건으로 국민들에게 기업의 역할과 광고의 중요성을 알려온 한국광고주대회는 국내 주요 기업의 광고주를 비롯한 매체사, 광고대행사, 학계, 정부 인사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을 이뤘다.



## 특별 세미나

2015 한국광고주대회 '특별 세미나'는 총 3개의 주제로 진행됐다.

제1주제 '2015 소비자행태조사 결과발표'를 맡아 발표한 장은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마케팅리서치팀 과장은 국내 최초로 액티브 시니어 행태조사를 실시, 고령화 시대의 마케팅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한편, 2015년 우리 국민의 매체이용 및 소비행태를 조사, 분석하여 광고주를 위한 효과적인 미디어 전략 방안을 제시했다.

제2주제 '창조경제의 한 축: 광고산업-광고시장의 활성화 전략'에서는 김병희 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가 광고산업의 창조산업화를 앞당기는 4가지 당면 과제와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해 큰 관심을 끌었다.

제3주제 '빅데이터가 찾아낸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문법'에서는 허원구 제일기획 DnA센터 팀장이 급변하는 시장과 소비자 행동을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분석함으로써 마케팅 전략 수립에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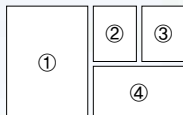


**광고주의 밤**  
KAA Awards 시상식

‘광고주의 밤’ 행사는 오후 6시 이정치 한국광고주협회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이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가적 위상에 걸맞는 광고산업의 외형적 확대를 기하는 한편,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타파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하며 “광고주협회는 앞으로도 광고산업의 선순환 성장과 미디어 발전을 위한 다양한 토론의 장을 만들고 그 해법을 제시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KAA Awards 시상식’에서는 국내 광고산업 발전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위해 각 부문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룬 공로자들을 시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고주가 뽑은 광고인상을 비롯하여, 방송프로그램상, 신문기획상, 모델상 등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먼저 ‘광고주가 뽑은 좋은 신문기획상’에는 동아일보의 국가대혁신 골든타임 & 박근혜노믹스 마지막 골든타임, 문화일보의 ‘암덩어리 규제’ 혁파, 한국경제신문의 ‘뛰는 일본, 기는 한국’ 구조 개혁이 갈랐다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독창적인 기획력과 아이디어로 자유시장경제의 올바른 인식 제고 및 기업가 정신 고취,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기여한 우수 기사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광고주가 뽑은 좋은 신문기획상’은 1차 예심과, 광고주협회 심사소위원회의 2차 심사, 그리고 최종적으로 운영위원회의 3차 본심을 통해 선정됐다.



- ① 광고주의 밤 인사말을 전하는 이정치 한국광고주협회장      ② 광고주의 밤 축사를 전하는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③ 경과보고를 전하는 주홍 광고주협회 광고위원장(대상 전무)      ④ 김종덕 장관과 인사 나누는 광고주협회 운영위원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광고주가 뽑은 좋은 신문기획상 수상자인 동아일보 하종대 부국장이 노승만 뉴미디어위원장(삼성 부사장)으로 부터 상패를 받고 있다. ② 문화일보 오승훈 경제산업부장이 노승만 뉴미디어위원장과 함께 한 기념촬영 ③ 한국경제신문 차병석 경제부장이 노승만 위원장에게 상패를 받고 있다. ④ 광고주가 뽑은 좋은 프로그램상을 수상한 KBS 서수민 PD ⑤ 광고주가 뽑은 좋은 프로그램상을 수상한 MBC 민철기 PD가 공영운 홍보위원장(현대차그룹 부사장)과 함께 한 기념촬영 ⑥ SBS 안순범 CP가 공영운 홍보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했다. ⑦ 특별세미나 제2주제를 발표하는 김병희 서원대 교수 ⑧ 특별 세미나 인사말을 전하는 임호균 한국광고주협회 상근부회장 ⑨ 특별 세미나 제3주제를 발표하는 허원구 제일기획 DnA센터 팀장



2015년 ‘광고주가 뽑은 좋은 프로그램상’은 KBS 프로듀사(드라마부문), MBC 일밤-복면가왕(연예오락부문), SBS 생활의달인(보도교양부문), tvN 삼시세끼 ‘정선편’(특별상)이 차지했다. ‘광고주가 뽑은 좋은 프로그램상’은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건전하고 유익한 프로그램, 시청률이 높으면서 광고효과가 좋은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한국광고주협회 회원사들의 투표와 심사를 통해 선정했다.

이어진 광고주가 뽑은 좋은 모델상 시상에서는 배우 차승원과 강소라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광고주가 뽑은 좋은 모델상’은 기업의 제품 판매 및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모델, 소비자 호응도와 친화력이 높으면서 프로정신이 투철한 모델, 광고 외적인 면에서도 타의 모범이 되는 모델을 대상으로 한국광고주협회 회원사를 비롯한 200대 광고주의 투표를 통해 총 3차의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이번에 수상자로 선정된 차승원은 SK텔레콤, 팔도, 롯데리아, 삼성물산 패션부문, 롯데면세점, 샘표, 배달앱 요기요, 레이븐 등에 출연하며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롯데리아 관계자는 “tvN ‘삼시세끼 어촌 편’에서 얻은 차준마 캐릭터와 인기로 강정버거에 대한 매출 상승세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자부문 좋은 모델로 선정된 강소라는 삼성에니카다이렉트, 코카콜라 스프라이트, 프로스펙스 W, 설악워터피아, 농심, 켈로그,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 A.H.C 화장품, 굽네치킨 등에 출연하며 최고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코카콜라 관계자는 “미생”에서 안영이 역을 맡아 인기를 끈 강소라는 촬영장뿐 아니라 브랜드 프로모션에도 성실하게 참여하고 소비자 호감도가 높은 모델”이라고 전했다.

올해 KAA Awards ‘광고주가 뽑은 광고인상’에는 김영일 前한국ABC협회 회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광고주가 뽑은 광고인상’은 광고주의 권익 보호와 광고의 자유 신장, 그리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인을 선정, 시상하는 제도이다. 올해 수상자로 선정된 김영일 前한국ABC협회 회장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ABC협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ABC제도 정착에 앞장서 효율적인 광고시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올해로 15주년을 맞는 2015 한국광고주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광고인 잔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KAA**



①	②
	③
⑤	④
	⑦
⑥	

- ① 광고주가 뽑은 좋은 모델상 수상자인 배우 차승원과 강소라가 이정지 한국광고주협회장과 기념촬영을 했다.
- ② 광고주가 뽑은 좋은 프로그램상을 수상한 tvN 내영석 PD가 공영운 홍보위원장과 기념 촬영을 했다.
- ④ 이정지 한국광고주협회장이 광고주가 뽑은 광고인상을 수상한 김영일 前 한국ABC협회 장에게 시상하고 있다.
- ⑤ 광고주의 밤 사회를 맡은 MBC 이성배, 김소영 아나운서
- ⑦ 축하공연을 해준 가수 조장혁과 여은

